하루를 시작하며

개 같은 날의 오후

신 순 배
수필작가

“도둑고양이처럼 오던 가을이 무슨 날강도처럼 훅 들어오나.” 한마디 내뱉는 아빠 따라 엄마도 맞장구를 친다. 하필 고양이라니. 서당 개 삼 년에 풍월이라면 집고양이 십 년에 심청가 한마당 못할까만, 아침부터 구시렁댈 것까지는 없고, 냐옹!

이름은 치즈. 수컷이니 젖 짜 먹자는 건 아닐 터. 간간이 들르는 형과 누나까지 식구로 산다. 나이는 열 살, 사람으로 치면 환갑쯤이라는데, 대하기로는 늘 막내 취급에 경로우대는 언감생심.

둘이 일을 나가면 혼자만의 시간. 볕이 들고 창가에 웅크려 앉으면 발치 아래로 보이는 작은 세상. 날것들이 한참을 시끄럽게 떠들다 가면 곧 녀석들이 나타난다. 끌려가는 녀석, 한자리에 꼼짝 않는 녀석, 허공에 짖어대는 녀석, 아무 데나 쉬하는 녀석. 날것들만큼이나 어수선한 개 너덧 마리. 눈길 주기도 싫은 것들이라 그러건 말건 졸듯 깨듯 한갓진 시간을 엔조이하려는데, 조이? 그 망할 녀석, 쪼이.

나는 지난날을 반추해 보는 것이다. 녀석을 보기 전까지 삶은 얼마나 평온했는가. 동트고 얼굴을 비벼대 아빠를 깨우면 살살 머리를 쓰다듬고 턱밑도 얼러준다. 사료 그릇 앞에 앉아 눈 깜박깜박 버티면 참치에 닭고기가 나오고, 몸 몇 번 문대주면 따라오는 빗질에, 드러누우면 제 등 긁던 효자손으로 배도 긁어주었지. 입이 심심해 엄마 손 내놓으라 하면 어느 가락인들 안 아플까만 열 손가락 다 내주기도 하고. 틈 없는 보살핌에 난 그저 시크하며 쿨하게 도도한 날을 보내면 되던 거였다.

이태 전 이맘때. 엄마의 남동생이라는 이가 집에 들어서며 데려온 강아지. 몸은 나와 비슷한데 뽀글뽀글 털이 눈까지 덮은 꼴이 심청이 아버지라도 답답할 지경. 뭐에 쪼여 사는지 이름이 쪼이라 하고, 들어오자마자 하는 꼴이 가관. 마장마술 걸음에 토끼 마냥 껑충껑충. 이리저리 번갈아 안고 핥더니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굴러라 자전 돌아라 공전까지, 지켜보는 식구는 입이 함박만. 적당한 밀당이 반려동물의 국룰이거늘 배알은 씨알만큼도 없이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

나의 도도한 일상은 그 오후가 마지막. 눈만 마주치면 이리 오너라, 저리 가라는 기본에 요즘 재미 붙인 면봉 놀이는 어떤가. 휙 던져주고는, 물어오면 던져준다 하고서 끝. 뿐만인가. 츄르를 주면서도 앉아라, 일어서라, 누워라, 굴러라. 이 딜레마를 어쩔까. 하자니 개 같은 놈이요, 안 하자니 개보다 못한 놈이라. 결국, 한두 번 앉고 일어서 주긴 하는데 그 미친 반응. 말 듣는 고양이라느니 멘사 냥이라느니 식구들은 또 입이 함박만 하고. 모질고 풍진 세상이 서글퍼 나는 방구석을 찾는데. 계시거든 보소서, 바스테트 신이시여.

뽀글이! 잘 지내겠지. 늙은 냥이의 푸념이니 그러려니 하게. 따지자면 그대 탓만이겠는가. 내 늘그막은 이제 그른 듯하고 자네는 젊은 날을 맘껏 누리시게, 그리고 부탁 하나 함세. 집에는 다시 오지 말.개.

사설

겉도는 교권 보호, 피해교사들 이중 고통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피해 교사들에게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법률·행정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교권 보호 제도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교육당국의 법률 지원 공백으로 피해교사들이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제주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해당 사건의 형사고소 변호사비 지원 한도를 피해교사 개인이 아닌 사건 전체 합계 330만원으로 한정 통보했다. 피해 교사가 여러 명인데도 1인당 배정되는 지원금이 수십만 원 소액에 그치고 있다. 이에 노조 측은 공제회에 재산정 이의서를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피해교사들은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한 채 경찰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교사들은 교육청과 공제회에 수차례 지원을 요청했지만 조력을 받지 못해 교권보호위원회에도 변호사 동행 없이 홀로 출석하고 있다. 특히 피해교사들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두 차례나 요청했던 교육감 면담마저 거절당해 교권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공제회 약관상 피해 지원 기준은 교사 개인별로 적용하도록 규정됐다. 그런데 단일 사건이라는 이유로 통틀어 지원액을 산정한 것은 피해교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 수십만 원의 소액으로 변호를 맡아줄 변호사가 없다는 것은 교육당국도 주지의 사실이다. 도움이 절실한 순간에 제대로 조력을 받지 못하고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 수업과 행정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피해교사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제주~인천 노선 수요 확보 머리 맞대야

제주~인천 직항노선이 지난 5월 다시 열린 후 넉 달을 넘기고 있다. 8월 말까지 평균 탑승률이 87.1%로 나타났고, 외국인 탑승객 비중도 30.4%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제주 접근성 개선 측면에서도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노선을 운항하는 제주항공은 5월 시범운항 당시 3개월간 운항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하계 운항기간인 10월 말까지 연장했다. 최근에는 동계운항기간인 내년 3월 말까지 운항기간을 다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운항 횟수도 현재 주 2회에서 11월 2일부터는 주 3회로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이 노선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수요 부족으로 2016년 운항이 중단됐던 전례가 있고, 제주항공이 몇 달 단위로 운항기간을 연장하는 것만 봐도 안정적인 운항 정착의 관건은 지속적인 수요 확보임을 말해준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달 15명 이상의 단체관광객 일행 모두가 이 노선을 이용할 경우 1인당 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지원책을 내놨다. 제주항공도 운항기간 연장을 발표하면서 항공권 할인과 소아 운임 면제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제주~인천 노선 정착을 위해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항공사와 제주도, 관광업계가 머리를 맞대 국적별·계절별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주를 목적지로 하거나 제주와 수도권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 외국인 유치 전략을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잠시 운행했다 사라지는 반짝 노선이 아닌, 외국인 관광객을 제주로 이끄는 새로운 통로이자 제주도민의 교통 편의를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연결축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열린마당

9월 재산세 고지서 속 ‘숨은 뜻’과 납부법

김 주 희
서귀포시 대정읍 재무팀

해마다 9월이 되면 “지난 7월에 분명히 재산세를 냈는데 왜 똑같은 고지서가 또 날아왔나요? 이중과세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세금의 중복 부과가 아니라 납세자의 목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법상의 ‘배려 분할’이자 정기분 납부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이 고지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일괄 부과돼 9월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즉, 9월 고지서를 받았다면 연간 주택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했거나 별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달 0.66%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하다.

최근 정부는 ‘신뢰받는 납세환경 조성’을 골자로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며 납세 편의를 강화하고 있다. 스마트 위택스 앱이나 ARS 142211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분실해도 전국 은행 CD/ATM기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위성곤 지사, 서귀포 찾아 민생·현안 점검

제10차 도·행정시 현안회의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서귀포시청을 찾아 민생과 지역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일선 직원들과 소통하는 현장 행보를 추진.

위 지사는 15일 서귀포시청 셋마당에서 제10차 도·행정시 현안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민생대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1차 산업 피해 대응 등 서귀포시 주요 현안을 점검한 후 서귀포시 직원들과 차담회를 열어 일선 행정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

위 지사는 “정책과 예산은 결국 시민이 느끼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중복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민생·안전·돌봄과 농어업 소득, 미래산업 등 꼭 필요한 분야에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달라”고 당부. 오소범기자

“드론 활용 산림재해 예방”

○…서귀포시가 산불과 불법 산림 훼손,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재해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산림재해 감시체계를 구축, 산림재해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설 예정.

지상 순찰만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원녹지과에서 보유한 드론 3대를 활용해 산림재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하고, 산림지역에서의 소각 행위와 불법 산림 훼손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위법 행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방침.

시 관계자는 “서귀포시 산림면적은 4만2835ha로 도내 산림의 48%가량을 차지한다”며 “산림재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 백금탁기자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묘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ㅇ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ㅇ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ㅇ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토박이
제주산담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대행
벌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 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억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 진주강씨 제주도종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
하나장의사
616-08-85402